

송광사 주민 찾아가는 포교

불자 자택 방문 가정법회 봉행 '인기' 경로잔치·운동회 후원 유대감 높아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송광사(수원시 송광면 신령리·주지 현봉)가 지역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관할교구를 받는 본사로는 이례적으로 마을법회에 나선 것. 지난 6월부터 아랫마을인 신령리의 불자 가정을 차례로 방문해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경로잔치 운동회 등의 지역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 관할로 사찰이 경제권과 사찰 수행환경 등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송사를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은 점과 대비해 송광사의 이같은 포교활동은 사찰과 지역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민들에게 불심의 씨를 심는 계기가 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송광사의 가정법회는 지난 5월 지역·법파 두 스님이 제작한 법회

홍보물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신령리 불자 17명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가지면서 시작했다.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22일 첫 법회를 봉행한 송광사는 매주 목요일 신령리의 불자가정을 순회하며 법회를 열고 있다.

지록스님(전 총무)과 범하스님(강원)을 지도법사로 열리는 법회는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스님들은 어려운 법문 대신 신도들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생활법문으로 법회를 이끈다. 송광사 가정법회는 신령리의 장으로 써 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마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애경사를 털어놓으며 이웃간의 정을 쌓아가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 그래서 신령리뿐만 아니라 인근 외송리 마을 불자들까지 법회에 동참하려고 찾



◇순천 송광사는 인근 신령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포교에 주력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송광사에서 열린 법회 장면.

아울 정도다. 14~23일에는 신심이 생긴 10여 명의 불자들이 자제적으로 송광사 대웅전에서 10일간의 기도정진법회를 가졌을 만큼 지역민들의 신심 고취에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인식이 좋지 않게 사실이다"며 "지역민들이 근처 사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마을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찰측의 적극적인 포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부산서 팔관회 재현

부불련 '통일·아시안게임 성공' 10월 개최

오는 10월 2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우리나라 전통 불교축제인 팔관회가 재현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민족통일의 원만 성취와 2002년 부산에서 치뤄지는 아시안 게임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고려시대 이후 단절된 민족 축제인 팔관회를 계승 복원하기로 했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팔관회는 호국사상에서 생겨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유민속과 불교가 접목되어 운동을 설치하고 향등을 달아 밤새 대를 설치해 가무를 즐기는 축제. 팔관회의 복원은 전통불교의식인

범종 범패와 불교음악, 무용의 현재적 조명으로 불교종합예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불교계의 화합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산불교연합회는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불거리와 시민동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 지역에서 불교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하기 위해 부문별 준비모임을 갖고 부산소재 1500여 사찰의 스님 및 불교지도자, 지역인사를 비롯한 폭 넓은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티베트 문화재 사라질 위기

FT보도 "라사서 15년간 5천건 도굴·파괴"

티베트 문화재의 무자비한 파괴와 도굴로 전통불교문화재가 망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따르면 최근 로버 바네트 미 콜럼비아대학교 교수는 네덜란드 레이덴에서 열린 티베트학회에서 "지난 15년간의 도굴 사건이 적발됐다"며 "이밖에 음습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된 전통

불교문화재는 수천가지에 달해 티베트에는 온전한 문화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이 종교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60년대 말까지 수천개에 이르는 사원중 97%를 철거하고 파괴했고 그 와중에 수많은 보물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후야오방(胡耀邦)이 유화 정책을 펴기까지 수천개의 불상이 무기공장에서 녹여졌고 허술한 관

통일염원 대형 염주 전시 10월 고성 통일전망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길이 150m, 무게 6t의 초대형 염주가 전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불자 임관지(林寬至·42)씨는 최근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제작한 대형 염주 108개를 기증키로 하고 전시방법과 인도시기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임씨가 기증키로 한 염주는 수령 2000년 정도된 아프리카산 원목을 재료로 제작한 것. 지름 90cm로 어른이 양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전체 길이는 150m, 무게는 6t에 이른다.

임씨는 일본 전시가 끝나는 9월 중순 일본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고 9월말 부산항으로 들여와 통일전망대로 옮겨온 뒤 오는 10월 중순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례 경기 남양주시 백천사

경기 남양주시 백천사(주지 무구)와 지장왕보살김교각기념관(관장 무구)은 27일 제3회 김교각스님 성도 및 추모 헌다례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동국대 사회복지학장 송묵스님의 사회로 무구스님의 모시는 말씀, 김영희 남양주시장의 인사말, 전용원 국회의원과 한국차문화협회 이원홍 이사장의 축사, 봉선사 화주 윤희순님의 법어, 조영록 동국대 교수(한국문화예술진흥회 명예회장의) 추모사, 한국차문화협회의 헌다례(육방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삼화사 인근광산 발파시험

강원도는 21일 쌍용자원개발(주) 석회석광산의 발파가 삼화사 건물과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제1차 시험발파를 30일 오후12시 동해시 쌍용자원개발 3-1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리를 틀타 티베트의 국보는 해외로 흘러갔다.

70년대 이후 중국정부가 도굴과 밀수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음에도 문화재유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티베트 불교문화재에 남획한 서구의 수집가 때문이다.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티베트문화재는 이젠 단골인 정도다.

중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책도 문화재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감독을 게을리해 민-관 합작없이 모두 문화재 팔아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 보도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불국사 유치원 개관

제11교구 불국사(주지 성타)는 17일 경주시 성근동에 위치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1층에서 불국사유치원 개관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문화회관 1층 300여평의 공간을 사용하는 불국사유치원은 5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다도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공사중인 불국사 문화회관은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등장에서 열린 제27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사진)에서 우승은 영월



삼태사, 준우승은 울산 정광사, 3등은 서울 삼룡사와 대구 대성사가 각각 차지했다. 씨름, 팔씨름, 릴레이, 단축 마라톤, 줄다리기, 족구 등이 열린 이번 대회에서의 각 종목 우승은 다음과 같다. △줄다리기= 부산 삼광사 △씨름=수원 용광사 △씨름=대구 대성사 △팔씨름=서울 삼룡사 △단축마라톤=(남) 장대진(제천 삼천사) (여)주은희(영월 삼태사) △용원상=서울 명락사 △수원상=거제 거광사 △최우수선수상=최부식(영월 삼태사)

수덕사 금강보탑 제막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강)는 지난 14일 금강보탑 제막식 및 진불사리 천불법회를 개최했다. 금강보탑은 수덕사 대웅전 안마당에 있던 팔각전탑을 일제히 철거 후 일석 건축양식으로 조인정사를 세운 것을 다시 헐고 세운 것.

태고종

밀양분원 '통일' 만등불사

경남교구종무원 산하 밀양분원(원장 지공)은 9월 16일 밀양시 삼내면 건보사에서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월봉 경남종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철화 법계고사위원장 등 밀양분원 산하 25개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 1천여명이 동참해 긴 줄을 1만등을 켜는 관등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천태종

배구대회 우승 영월 삼태사

20일 단양군 영춘중학교 운

관문사 추석 제수품 판매

서울 관문사는 추석을 맞아 9월 2~3일 양일간 관문사 지하와 1층 2층에서 추석제수품을 판매한다. 불자들의 추석준비를 위해 쌀 대추 등 농산물과 수산물 등 모든 제수용품들을 한곳에 모아 시중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한다. (02)3460-5300

일불선교종

제주시 증도수련대회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한림읍 용포포교당에서 2백여 증도가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교육원장 법운스님 종단 간부스님들과 일불선교대학원 학장인 원의법 교수와 강태목 제주대 교수의 특강과 증단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우공양, 친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불선교보 스님의 유적지인 일불동산과 삭발처인 산방산 광명사 등도 순례했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촉자 김희균

서울 중구 평창동 45번지
(02) 396-2736 H-P 016)228-2358
E-mail : bukba@kornet.net FAX (02) 396-2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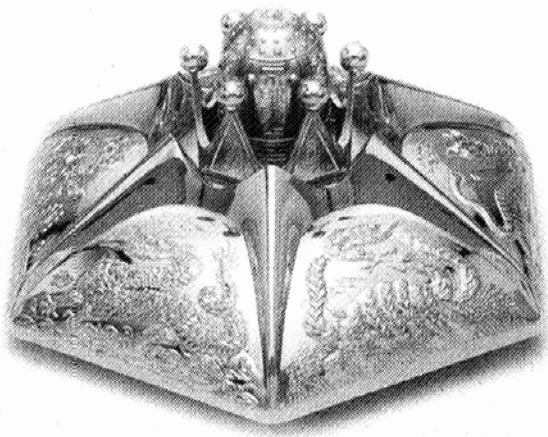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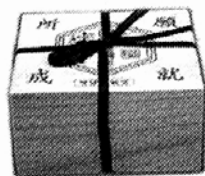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비용은18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본래의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정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天). 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사용지◆ *모든 불자들에게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의장등록·상표등록 (특허출원)

◆구입지◆ 전국불교용품점, 서점·임지, 절막관 (주)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공장: 051) 864-7878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품의 게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몇몇 일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도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피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두어 좋습니다.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